

TV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40 코노미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 <폭풍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 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생방송 오늘 아침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스설 40 여유만만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황홀한 이웃>
10	2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튜튼생활채널	40 결혼이야기(재)	10 좋은 아침
11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05 생생 정보 스페셜(재)	00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운말	05 비타민(재)	00 SBS 뉴스 30 SBS 생방송경제 45 KBC 생방송뉴스
1	40 김부장의 뉴스통	00 대조영(재) 55 TV 동화 빨간자전거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처녀사>(재)
2	50 직인직설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생활의 발견(재)	20 한중FTA 특별기획 <14억 중국시장에서 미래를 본다>(재)
3	00 문화빅백 윤건의 더 콘서트	00 문화빅백 윤건의 더 콘서트	4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05 헬로키즈 송수마를 붕붕2 55 보글 쿡킹스테이크
4	00 정오판의 시사방법	00 KBS 뉴스 4 10 스키야드(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40 TV 유치원	00 SBS 12 뉴스 45 닥터365 55 세상발견 유레카
5	00 하중대의 쾌도난마	00 KBS 뉴스 5 20 전국의 달린다 40 남도지오그래피	10 마법천자문(재) 40 동물의 세계(재)	00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6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정보	00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7	20 갈때까지 가보자(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밤상	50 일일 드라마 <달콤한 비밀>	00 SBS 뉴스 10 SBS 이슈인사이드
8	20 모쿠 드라마 <싸인>(재)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사랑>	30 결혼이야기 55 작정하고 본방사수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 10 SBS 이슈인사이드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신년특집 이승철과 탈북청년 42인의 하모니 <그날에 제1편> 55 송타	00 수목 드라마 <왕의 얼굴>	00 SBS 뉴스 10 SBS 이슈인사이드
11	00 내조의 여왕(재)	00 KBS 뉴스타임 40 KBS 특선 <뉴스 읽는 도시 제2편>	10 해피 투게더	00 드라마 스페셜 <피노키오>
12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①:30 채널A 일요기획(재)	30 넷드립 문화 특선 윤빛 무직 ①:20 생활의 발견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드라마 스페셜 <피노키오>

# “꿈 이루게 해준 ‘토토가’에 감사”

세 아이 엄마 S.E.S 출신 슈



“언젠가 달콤한 꿈을 꾸게 현실이 이뤄졌죠. 그동안 무대에 그리웠는데, 아니 그 그리움조차 잊었던 때가 있는데... 우리(S.E.S) 노래 제목처럼 정말 ‘드림스 컴 트루’(Dreams Come True)였어요.”

아이 셋의 엄마라는 게 믿기지 않는, 1세대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4). 그는 최근 MBC ‘무한도전’의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토토가) 편에서 S.E.S로 다시 무대에 선 감격을 이렇게 표현하며 상기한 표정을 지었다. S.E.S로 무대에 오르는 2002년 5집을 끝으로 팀이 해체된 지 12년 만이었다.

“‘토토가’ 출연 이후 향수에 젖어서 현실 적응이 어려웠다”며 “처음엔 ‘재미있게 하자’였는데 나도 놀랄 정도로 내 몸이 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일이라고는 정말 신이 나서 카메라도 신경 쓰지 않고 춤을 댔다”고 웃었다.

“관객의 함성이 엄청났어요. 그 소리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어 녹음해두고 싶을 정도였죠. 공연이 끝난 뒤 눈을 감고 관객의 환호를 잠시 들었어요. ‘맞아, 내가 이 소리 때문에 음악을 했었지’란 생각이 무대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토토가’에서 S.E.S는 멤버 바다와 슈만 참여했다. 멤버 유진은 임신 중이어서 대신 소녀시대의 서현이 그 자리를 메웠다. 공연이 끝나고 김건모, 태보, 조성모, 룰, 소찬휘, 김현정 등 1990년대 스타들이 대거 참여한 뒤돌이 현장에서의 화기에 애한 분위기도 몽롱했다고 한다.

“음악이 나오면 다들 의자 위에 올라가 춤을 추고 난리도 아니었죠. 조성모 오빠가 ‘내가 슈에게 술을 따라줄 줄이야’라고 말해 한바탕 웃었어요. S.E.S 시절 동료 가수들과의 자리에 우린 곧잘 빠져들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돈독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끼리 채팅하는 카톡방도 만들었고 공연을 해보자는 얘기도 나왔죠.”

데뷔 시절부터 지난 시간에 대한 여러 단상도 떠올랐다고 한다. 가수로 데뷔한 건 우연이었다. 1995년 롯데월드 지하 쇼방 몰에서 걸거리 캐스팅돼 연습생 생활을 거쳐 1997년 S.E.S로 데뷔했으니 이 분야에 발을 들여 놓은 지도 올해로 20년이다.

그는 “그때 방송사 대기실 밖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웃으며 “언론과 팬클럽이 핑클과 경쟁 구도를 만들어줬는데, 사실 두 팀의 멤버끼리 친하게 지냈다. 이번에 핑클이 참여했다더라면 더 재미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S.E.S가 다시 뭉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얼마 전에도 우리끼리 그런 논의를 했는데 유진이 임신하면서 어려워졌다”며 “이번처럼 단순히 ‘뭉쳐보자’ 하면 가능한데 우리 팀뿐 아니라 다들 ‘뭔가 거창하게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란 고민을 해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0년 농구선수 임효성과 결혼했다. 요즘은 방송에서 ‘전직 요정’ ‘아줌마’로 불린다. 아들 유, 쌍둥이 딸 라희와 라유이를 역적스럽게 키우는 모습, S.E.S 시절보다 한층 호탕해진 웃음, 연예계 돌아가는 사정에 어두운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다.

그는 “‘무도’에서 하하 오빠가 ‘뒤틀습만 보면 우리 장모님 같다’고 말해 속상했다”고 웃으며 “그런데 아이 있는 엄마이니 아줌마인 건 사실이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자꾸 한발 늦게 박수치고 ‘리액션’ 하는 모습이 아줌마처럼 보인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란한 가정을 꾸린 덕에 광고 모델로도 주가를 올리고 있다. S.E.S 시절에는 주로 음료, 제과, 화장품, 패션의류 등의 광고에 출연했다면 지난해부터 찍은 8개 광고는 샴푸, 가습기, 청소기, 유아복, 침구류, 분유 등 주로 아이와 관련된 제품이다. 예쁜 주부 이미지 덕에 최근엔 화장품 광고 모델도 됐다.

###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생활백과>	14:00 아기고릴라 동동	17:30 로보카 폴리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10:10 세계경문록 아틀라스	14:15 치료와 친구들	17:45 뽀롱뽀롱 뽀로로
06:10 세계의 눈 <특선>(재)	10:50 최고의 요리 비결	14:30 미술탐험대	18:00 생방송 특목! 보나하니
07:00 시계마을 타기톡(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4:45 미앤마이로봇	19:00 큰
07:15 곤(재)	11:20 세계테마기행	15:00 꼬마 철학자 추고	19:50 달라졌어요(재)
07:30 책과 땅(재)		15:15 어린 왕자	20:40 다유 오늘
07:45 로보카 폴리(재)		15:30 정글북	20:5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	12:00 EBS 정오뉴스	15:45 꼬마의 친구들	<일본의 맛을 찾아서 규슈>
08:20 뽀롱뽀롱 뽀로로(재)	12:10 연중기획 <행복한 교육세상>	16:00 당동명 유치원	21:30 한국기행(일출기행)
08:35 방귀대장 뽀롱이	13:05 역사채널	16:20 버블버블 마린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8:50 How-만들어 볼까요	13:10 겨울방학생활 2학년	16:35 워드 볼츠	22:45 다문화 고부열전
09:05 바오밤섬의 파오파오(재)	13:30 겨울방학생활 4학년	16:45 How-만들어 볼까요(재)	23:35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09:2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3:50 겨울방학생활 6학년	17:00 방귀대장 뽀롱이(재)	24:05 역사채널
09:35 따개비루		17:15 바오밤섬의 파오파오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2016 수능열기 <유중현, 윤선명의 국어>	07:00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대비
00:50 <오광석의 수학 I>	07:30 실험관찰 비법 노트 (5-2)
01:40 <오랜지의 영어>	08:0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02:30 수능김집이<문학>	08:30 검정고시 교육강좌
03:20 <수학 I>	09:00 줄거운 수학 EBS MATH
04:10 <미적분과 통계기본>	09:10 TV 중학 <과학1>
05:00 <영어독해 유형>	09:50 <사회1>
06:40 <박근영의 미적분 I>	10:30 <과학2>
07:30 <차현우의 미적분 II>	11:10 <역사1>
08:20 <구명석의 확률과 통계>	11:50 <사회2>
09:10 <독서와 문법>	12:30 초등3년 겨울방학생활
10:00 고등예비과정 <장동진의 국어>	13:10 중급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0:50 <최은진의 수학 I>	13:50 필독 중학 한국사
11:40 박복의 이유로 만나는 경제	14:30 중학e포스 영어 독해(유형별)
	15:20 초등2년 겨울방학생활
	15:40 초등4년 겨울방학생활
	16:00 초등6년 겨울방학생활
	16:20 <김포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16:50 한자교육 드라마 어린이 손자방법
	17:20 리얼체험 맘 <사회1>
	17:50 스텔랜드(재) <과학3>
	18:00 중학예비과정 <역사2>
	18:40 <역사2>
	19:20 과학탐정단 시드
	19:40 사이틴·백민이의 지구뉴스
	20:00 EBS 인문학 특강
	20:50 EBS 기획시리즈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22:00 초급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왼쪽부터 조달환·류혜영·김재중·김민재>

# “10% 돌파시 탈북주민에 선물 쏩니다”

김재중, KBS 2TV ‘스파이’ 제작발표회서 시청률 공약

건달 출신으로 기업 대표이사까지 오르는 허영달부터 확고한 신념의 포도청 종사관 김경태, 대기업 경영을 꿈꾸는 본부장 차무일에 이르기까지 김재중(29)은 극 중에서 주로 카리스마 넘치는 역할을 맡아왔다.

그는 새해 첫 작품으로 선정한 KBS 2TV 금요 미니시리즈 ‘스파이’에서도 정보기관의 우수 요원 김선우를 맡았다.

다만 김선우는 엄마와 남다른 유대감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카리스마만으로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김재중 또한 “국정원 직원이라고 해서 어떤 걸 연습하기보다는 보통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20대 청년 같은 캐릭터를 보여 주려 한다”고 밝혔다.

“김선우는 집에서는 엄마밖에 모르는 젊은이예요. 따뜻한 집에서 크게 자랐죠. 물론 국정원에서 일할 때는 헌명함과 냉철함을 잊지 않습니다. 이중적인 인간이 아니라 한 인간이지만 다양한 환경에 따라 적응하고 대처하는 김선우의 모습을 많이 보여 드릴 것 같아요.”

가족 첩보 스릴러를 표방하는 ‘스파이’의 핵심 고리는 모성애다.

27년 전 중국에서 활동하던 북한의 여자간첩 박혜림은 목표물인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그의 아이를 임신한다. 박혜림은 연인과 아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북한을 배신한다. 평범한 주부로 살던 박혜림은 수십 년 만에 자신을 찾아온 북한의 공작원으로부터 아들 선우를 간첩으로 포섭하라는 협박을 받는다. 아들을 위해 자신이 다시 간첩이 되기로 한 박혜림은 배종옥(51)이 맡았다.

드라마는 아들과 엄마가 서로 속고 속여야 하는 갈등 상황에서 화해와 성장을 이루는 모습을 담을 예정이다. 김재중은 “친어머니가 연세가 높으신데 배종옥 선배는 젊은 엄마”라면서 “나이가 좀 있는 예쁜 누나와 연기하는 느낌이어서 기분이 좋다”고 밝혔다.

KBS가 모든 세대를 잡겠다고 버티며 내놓은 이번 드라마의 또 다른 축은 김선우와 여자친구 이윤진(고성희 분)의 달콤하면서도 비밀스러운 로맨스다.

김재중은 “성희 씨는 보면 불수록 예쁜, 묘한 매력의 소유자”라면서 “특히 목소리가 정말 좋아서 대화를 많이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재중은 ‘스파이’의 매력에 대해 “KBS 드라마라는 느낌이 안 든다”며 “KBS였기 때문에 제한되는 장면들이 이번에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박현석 PD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연출한다”면서 “박 PD가 계산이 정확한 분이요 오히려 배우들이 그 속도에 맞춰서 따라갈 수 있을거라 걱정이 될 정도”라고 덧붙였다.

‘스파이’가 2회를 연속 방송하는 것도 요즘 몰아보기를 즐기는 시청자들을 사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김재중의 설명이다.

김재중은 이날 시청률 공약으로 “수도권 기준 시청률이 10%를 돌파하면 새터민 주민에게 선물을 할 계획”이라면서 “서른 분을 뽑아서 작은 가전제품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8일(음 11월 18일 甲申)

子	48년생 마음에 차지 않을 수도 있다. 60년생 지금은 때가 아니니 조용히 대세를 관망하고 있는 것이 옳다. 72년생 상황에 적응하다 보면 혼란이 올 수도 있다. 84년생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니 지체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29, 74	午	42년생 여러 가지가 함께 올 것이니 예리한 시각과 유연한 수용 능력으로 대처하자. 54년생 편하게 대하는 것이 현명하다. 66년생 완전한 결말을 짓게 되는 날이다. 78년생 제대로 갖어치를 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0, 33
丑	49년생 큰물로 나아가야 대어를 잡을 수 있느니라. 61년생 운기가 험하게 솟구쳐 오르는 형상이다. 73년생 오매불망하며 기다려 왔던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다. 85년생 조그만 더 진행하고 있으면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73, 30	未	43년생 마음을 안정시키고 태산처럼 있느니라면 반전 되리라. 55년생 우연한 기회를 제공받고 매우 기뻐할 수다. 67년생 특수한 관계로 전향될 수도 있다. 79년생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2, 79
寅	38년생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 한다. 50년생 교육 한다면 필히 근심이 생기리라. 62년생 당해내지 못할 이유가 없느니라. 74년생 생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86년생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2, 49	申	44년생 알고도 모르는 척 해야 할 일이 생길 것이니 눈 딱 감고 있라. 56년생 여건의 변화에 따르지 않으면 아니 된다. 68년생 속단은 금물이다. 80년생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85, 27
卯	39년생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51년생 화합하는 것이 낫다. 63년생 분간하기 힘들 것이니라. 75년생 울무에 걸려들지 않도록 잘 살펴야겠다. 87년생 잊어버려 놓고 못함을 정하기가 어렵다. 행운의 숫자 : 57, 25	酉	45년생 과거사가 현재까지 확실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라. 57년생 새로 시작하는 것이 낫다. 69년생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리라. 81년생 따로 떼어 놓고 판단함이 정확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0, 52
辰	40년생 과감한 변화를 보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52년생 의심스런 인연을 만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64년생 판국에서 가장 큰 기회가 보인다. 76년생 명예는 성실한 노력에 달려 있다. 행운의 숫자 : 75, 42	戌	46년생 정해진 수순대로만 행한다면 아무런 하자 없었다. 58년생 정성을 들이다 보면 보람을 느끼게 되리라. 70년생 초기에는 힘들지만 정끝나는 이우리라. 82년생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니 기탄없이 진행하자. 행운의 숫자 : 53, 91
巳	41년생 길성의 기운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53년생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역할을 하게 되리라. 65년생 영달에 이르는 길은 노력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느니라. 77년생 고뇌는 삶을 승화시키는 데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46, 61	亥	47년생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기회를 얻는다. 59년생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다. 71년생 우선시 해야 할 바가 분명히 있다. 83년생 시기와 입장에 따라서 관점을 달리 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7, 8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